

2023. 9. 11(월). 10:00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 안건명 〉

남양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교통위원회
전 문 위 원

남양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30일 이진환 의원 등 11명의 발의로 제출되어 「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2023년 8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도시교통위원회 회부 된 안건임

2. 제안이유

관내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안전에 취약한 계층에게 청각장애인용 시각표시기능 화재감지기 설치 및 재난 및 사고 예방에 필요한 안전 장비·용품 제공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 되도록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명을 「남양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에서 「남양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로 함.
- 나.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청각장애인용 시각표시기능 화재감지기시설 설치와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3조)
- 다. 상위 법령에 따라 “재난취약계층”을 “안전취약계층”으로 용어 정비. (안 제1조~제7조)

4. 참고사항

- 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보고서 : 덧붙임(붙임1)
- 나. 남양주시 화재통계 및 타 시·군 비교·검토 : 덧붙임(붙임2)
- 다. 소방뉴스 : 덧붙임(붙임3)
- 라. 입법예고 결과 (23. 8. 30. ~ 9. 4.)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보건복지부 안전취약계층 인구구성 및 전망에 따르면 안전취약계층 인구는 2020년 약1,726만명에서 2040년 약 2,437만명으로 증가하여 전체 인구의 49%까지 증가가 예상되며 통계청의 재난안전사고 사망자 통계의 사망자 수는 2016년 280,785명에서 2021년 317,655명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또한 최근 3년간(20년~22년) 우리시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는 1,210건이며, 인명피해는 96명으로 타 시·군에 비해 화재 발생 건수가 높으며 지난 2021년도 다산동지역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 12년간 74억을 들여 화재경보기 등을 설치한 사례와 같은 방안 모색과 관심이 필요함.
- 본 조례는 ‘남양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를 ‘남양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지원대상과 범위도 청각장애인용 시각표시기능 화재감지기 설치와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사고를 예방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2023년 9월 5일

도시교통전문위원 윤 선 기

발 간 등 록 번 호

11-1741056-000446-01

안전취약계층 시인지 특성을 고려한 안전디자인 평가체계 개발

Development of Safe Design Evaluation System Considering the Cognitive
Characteristics of the Vulnerable Group

2022. 12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안전취약계층 인구통계

장래인구추계 보고서(2022)에 따르면 총인구는 2020년 5,184만 명에서 2040년 5,019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2020년 유소년인구는 623만 명(12.4%)에서 2040년 430만 명(8.9%)으로 감소하며,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0년 807만 명(16.1%)에서 2040년 1,698만 명(35.3%)으로 증가하여 향후 20년간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표 2.3). 유소년, 노인, 외국인 인구의 합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 약 1,600만 명에서 2040년 2,344만 명으로 총인구의 47%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과 2022년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현황에 따르면 내국인의 0세~14세의 장애비율은 1% 내외이고, 15세~64세의 장애비율은 약 3.5% 이나, 65세 이상의 장애비율은 약 16% 정도로 고령화되면서 장애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3 내외국인 인구구성 및 전망(단위: 만 명)

	'20	'21	'22	'23	'24	'25	'30	'35	'40
총 인 구	5,184	5,174	5,163	5,156	5,150	5,145	5,120	5,087	5,019
내 국 인	5,013	5,012	5,003	4,992	4,981	4,972	4,929	4,883	4,803
유 소 년	623	606	585	560	537	515	421	401	430
15~64세	3,583	3,558	3,526	3,493	3,456	3,411	3,221	2,975	2,676
노 인	807	848	892	939	989	1,045	1,287	1,507	1,698
외 국 인	170	162	160	164	169	173	190	204	216
합 계 (유소년+노인+외국인)	1,600 (31%)	1,616 (31%)	1,637 (32%)	1,663 (32%)	1,695 (33%)	1,733 (34%)	1,898 (37%)	2,112 (42%)	2,344 (47%)

출처: 통계청(2022) 재구성

표 2.4 연령별 등록 장애인 현황(단위: 명)

	2020	2021
- 14세	58,119 (0.93%)	61,170 (1.01%)
15 - 64세	1,260,282 (3.52%)	1,226,315 (3.5%)
65세 이상	1,314,625 (16.3%)	1,357,215 (16.0%)
합 계	2,633,026 (5.25%)	2,644,700 (5.27%)

출처 : 보건복지부(2022)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통계연보(2022)에 따르면 전체 인구 대비 등록 장애인구는 2001년 2.4%에서 2021년 5.1%로 증가하였다. 등록 장애인구 중 2020년과 2021년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인구를 사용하였으며, 이후 연도별 추정치는 최근 2년간 15세~64세 인구 중 장애 비율(약 3.5%)을 15세~64세 인구 예상치에 곱하여 계산하였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15세~64세), 외국인을 포함한 안전취약계층 인구는 2020년 약1,726만명에서 2040년 약 2,437만명으로 증가하여 전체 인구의 49%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세~64세 인구가 줄어들면서 장애인구는 줄었지만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안전취약계층 인구는 증가하였다

표 2.5 안전취약계층 인구구성 및 전망

	'20	'21	'22	'23	'24	'25	'30	'35	'40
총인구(만 명)	5,184	5,174	5,163	5,156	5,150	5,145	5,120	5,087	5,019
외 국 인	170	162	160	164	169	173	190	204	216
유 소 년	623	606	585	560	537	515	421	401	430
노 인	807	848	892	939	989	1,045	1,287	1,507	1,698
장 애 인 (15~64세)	126*	123*	122**	121**	120**	118**	112**	103**	93**
합 계 (유소년+노인+외 국인+장애인)	1,726 (33%)	1,739 (34%)	1,759 (34%)	1,784 (35%)	1,815 (35%)	1,851 (36%)	2,010 (39%)	2,215 (44%)	2,437 (49%)

* 보건복지부 등록 장애인구 통계 ** 15~64세 장애인구 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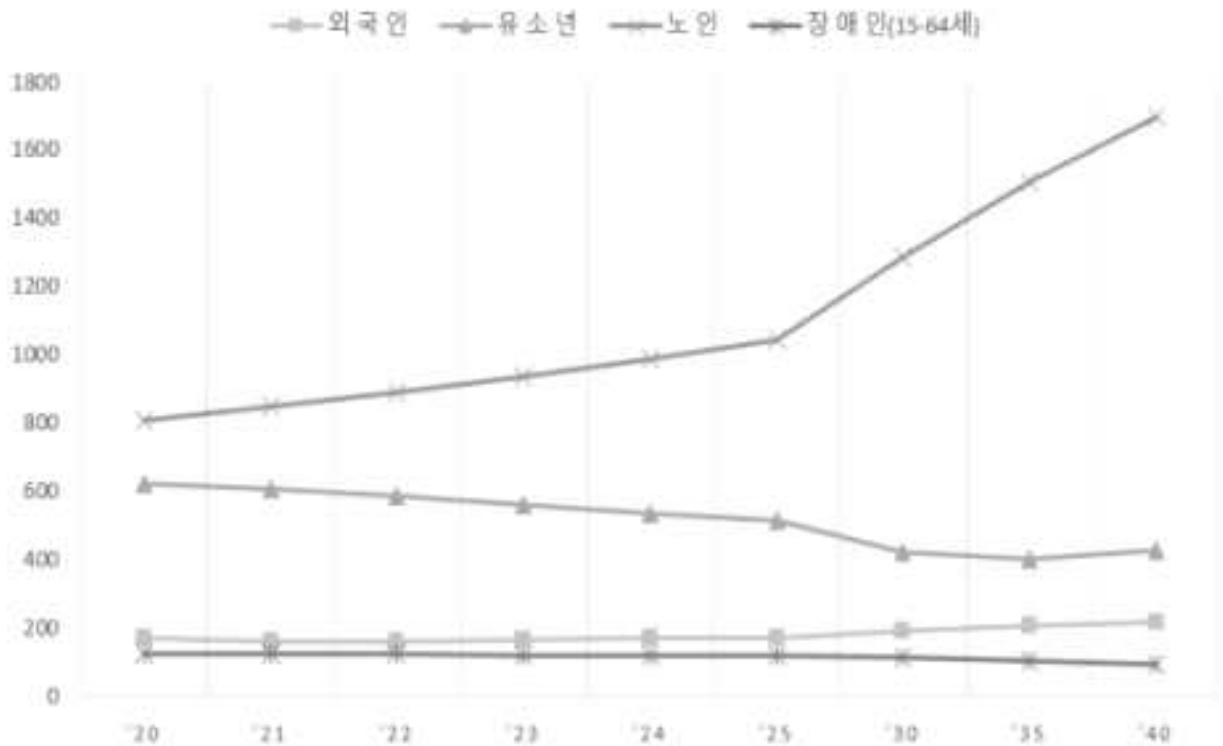


그림 2.1 안전취약계층 인구 전망(2020~2040)

□ 안전취약계층 사망자 통계

행정안전부는 2019년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4년)을 수립하고, ‘재난안전사고 사망자 40% 감축’을 핵심지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어린이, 노인, 장애인, 외국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모든 사람이 안전할 수 있는 포용적 안전정책을 추진하고자 “안전책임을 다하는 정부”를 주요 목표로 선정했다. 이를 통해 '17년 기준 27,154명 수준인 재난안전사고 사망자(통계청 사망원인 통계 중 사망의 외인에 의한 사망)를 '24년까지 대폭 감축하고, 우리나라의 안전수준(인구 10만 명당사망의 외인에 의한 사망자수 기준)을 OECD 국가 중 26위에서 13위까지 올리려는 세부 목표를 수립하였다.

□ 안전취약계층 사망자 통계

통계청의 재난안전사고 사망자 통계를 보면 연도별 총 사망자 수는 2016년 280,785명에서 2021년 317,655명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사망자가 늘어나지만, 재난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016년 28,218명에서 2021년 26,147명으로 감소하며,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사망자가 늘어나기보다 50대의 사망자가 가장 많다.

□ 안전취약계층 인명피해

행정안전부는 국내 주요 자연재해 및 복구현황 통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1964년부터 「재해연보」를 발행하고 있으며, 「재난연감」은 전국에서 발생하는 사회재난 및 각종 사고발생 현황을 제공하는 통계자료로, 1996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으며 재난관리 주관기관에서 관리하는 사회재난 유형(28종) 및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사고발생 유형(21종)별 통계로 구성된다. (표 2.6)

표 2.6 최근 10년간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인명피해 현황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자연재난 사망·실종자	78	16	4	2	0	7	7	53	48	75
사회재난 사망·실종자	3	5	12	411	67	19	65	93	63	1,008
합 계	81	21	16	413	67	26	72	146	111	1083

출처: 행정안전부

2020년 재난유형별 현황을 보면 총 75명의 인명피해 중 폭염 사망자가 29명으로 가장 많았고, 하천급류 18명, 산사태 14명 순이었다. 연령대별 인명피해는 5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폭염 사망자의 경우 80세 초과 연령층에서 14명이 발생하여 노년층으로 갈수록 무더위에 취약함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재난의 경우 2020년 인명피해 중 사망자가 전년도 52명에서 998명으로 대폭 증가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사망자가 922명 발생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표 2.7 2020년 연령별 - 재난 원인별 인명피해(사망·실종) 발생현황

	합계	자연재난						사회재난					
		하천 급류	산사태	침수	붕괴	폭염	기타	산불	대형 화재	해양 선박 사고	사업장 대규모 인적 사고	감염병	기타
0~10세	2	1	1	-	-	-	-	-	-	-	-	-	-
11~20세	1	-	-	-	-	1	-	-	-	-	-	-	-
21~30세	3	1	-	2	-	-	-	-	3	3	3	3	-
31~40세	4	-	1	-	3	-	-	-	4	3	4	6	1
41~50세	3	1	1	-	-	1	-	1	-	3	14	30	1
51~60세	14	3	5	2	1	3	-	-	2	4	10	107	7
61~70세	13	6	2	-	-	4	1	-	2	6	7	262	2
71~80세	19	6	4	1	1	6	1	1	1	1	-	384	2
80세 초과	16	-	-	-	2	14	-	-	1	-	-	130	-
합 계	1,083	18	14	5	7	29	2	2	13	20	38	922	13

출처: 행정안전부

붙임2

남양주시 화재통계 및 타 시·군 비교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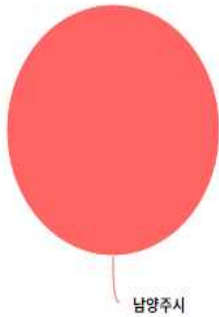
자료: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 화재통계

□ 통계 개요

통계 개요

행정구역

[행정구역 - 경기도 - 남양주시] 화재건수 비교



[행정구역 - 경기도 - 남양주시] 화재건수



□ 상세 결과

구분	화재 건수	사 망	부 상	인명 피해 계	부동산피해 (천원)	동산피해 (천원)	재산피해 (천원)	재산피해/당 (천원)
남양주시	1210	6	90	96	54,871,950	41,332,678	96,204,628	79508
구리시	304	1	30	31	2,131,824	7,157,085	9,288,909	30,556
의정부시	678	6	36	42	3,104,045	7,226,826	10,330,871	15,237
하남시	530	3	24	27	3,693,981	7,218,258	10,912,239	20,589
과천시	106	5	57	62	33,930,497	3,809,072	37,739,569	356,034
시흥시	1024	9	60	69	13,714,260	34,653,414	48,367,674	47,234
김포시	1195	3	54	57	18,582,535	25,417,807	44,000,342	36,820
부천시	1026	13	69	82	6,739,465	7,276,973	14,016,438	13,661

소방재난본부는 25개 전 자치구와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의 거주지 변경 정보를 수시로 파악해 소방시설의 신속한 설치를 지원하는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소방재난본부는 1년에 한 번씩 자치구에서 재난취약계층 세대 현황 정보를 받아 화재경보기나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이 없는 주택에 소방시설 설치를 무료로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설치 대상이 누락되거나 설치까지 공백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이제는 서울시 내에서 소방시설이 없는 주택으로 이사한 장애인이나 홀몸노인 가구가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할 때 소방시설 설치 신청서를 작성하면 구청이 수시로 취합해 관할 소방서로 통보한다.

이후 소방서 주택화재봉사단(의용소방대)이 개별 세대를 방문해 주택용 화재경보기와 소화기를 무료로 설치해준다.

소방재난본부는 2010년부터 12년간 74억원을 들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홀몸노인 등 화재취약계층 19만2천여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했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재경보기 설치가 필수"라며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생활밀착형 안전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